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범어사 템플스테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모양일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예요!”

현문현답(賢問賢答)이다. 이른 아침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의 방에 특별한 15인의 선객이 범모를 청했다. 과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찾아 무사히 하산할 수 있을까.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4월 27~29일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에서 지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산사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휴가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최하고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용)이 주관한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울산 아나올보호작업장에서 도자기를 빚고 판매하는 지적장애인 15명과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장 지용 스님 및 사회복지사, 동국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15명이 동참했다.

참여한 지적장애인은 신체 및 건강상 비장애인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부정적 자아와 의존경향, 불안정한 심리 변화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 파가운 세상의 시선을 벗어나 산사를 찾았다. 행사는 심신의 안정을 얻고 나와 이



# 부처님 앞에 서니 장애인과 나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웃,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자아성찰의 기회를 갖고 자 마련했다.

주지 정여 스님은 “불교는 부처님처럼 깨닫기 위해 마음을 찾아 수행하는 종교다.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예쁜 사람이다. 범어사에 머무는 동안 마음 속에 맑고 깨끗한 연꽃의 향기를 가득 채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27일 경주를 방문해 불교성지를 답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은 시작됐다. 오후 4시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입제식을 갖고 본격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 첫날 3일간 일일단체가 돼 함께 지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배정하고, 불교영화 ‘오세암’을 관람한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에는 스님의 삶과 우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범어사에서 예불과 포헌, 전기공과 참선수행, 삼보일배와 탐돌이 등 불교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지적장애인 이은미(32, 아나올보호작업장) 씨는 “실제로 스님을 뵈는 처음이라 무척 설레고 기쁘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은미 씨와 짝을 이룬 자원봉사자 서지현(동국대 의생명공학과 3년) 씨는 “처음 참가한 봉사활동이라 장애인들을 일방적으로 돕게 될 것이라는 생각했다. 하지만 잘못된 선입견을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장애인들과 내가 부처님 앞에 나란히 섰을 때 서로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들의 자립심과 함께 타인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등 만들기와 꽃물들이기, 전통놀이 등 봉사자와 호흡을 맞추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10명씩 3개 조로 나뉘어 연꽃잎을 만들고, 연등 속지를 붙였다. 소원을 적은 등표를 달기까지 장애우와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도와 연등을 만들었다.

또 하얀 손수건에 꽃물을 들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손을 맞잡고 산길을 올랐다. 꽃을 따서 손수건에 꽃물을 들이기까지 모든 것은 함께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상대적인 것이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나와 너가 함께 느꼈다. 세상은 혼자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된다.

템플스테이의 총괄 진행을 맡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선미 팀장은 “서로 협동해 연등을 완성하던 것처럼 장애우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를 대비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방적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든 꽃물 염색 손수건을 보여 주고 있다.

도움을 바라기보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을 가르쳐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참가 하루 전까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쳤다는 자원봉사자 조은희(동국대 외식경영학과 3년) 씨는 “확박한 학교생활에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장애우를 돌보는 봉사라기보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은 것처럼 즐겁다”고 말했다.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 여긴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똑같은 초심자였다. 봉사자와 장애인 참가자 모두 똑같은 범벅을 입고 동등한 입장으로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줬다. 이들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깨닫는 것은 아닐까. 박지원 기자



자원 봉사자와 스님, 장애우가 함께 연등을 만들고 있다.

## 1% 희망으로 100% 행복찾기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지용 스님 인터뷰

행사를 주관한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용)은 수십여 차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때마다 단순히 장애인들의 즐거운 소풍이 아니라 그들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한 자기개발활동을 기획한다. 이번 템플스테이 역시 도자기를 빚는 지적장애인들의 솜씨와 창의력을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데에 주력했다.

지용 스님은 “장애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나만이 가진 개성’이라는 의지를 가져야만 무언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며 “어떤 중증장애인이라도 능력은 있기 마련이며, 이를 찾아 심부름 발원한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애인들과 일대일로 맺어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일방적 도우미가 아닌 협력자였다. 항상 누군가로부터 보호만 받다가 사찰이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박지원 기자

스님은 “내 힘으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워길 바란다. 그것이 미소여도 좋고 따뜻한 손길이어도 좋을 것이다.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자들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길 바란다. 편견은 벽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고 만다. 하지만 차별 대신 이들을 인정하면 저 사람의 한계가 여기까지임을 알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배려해 더불어 살아가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남군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모토는 ‘1%의 희망으로 100%의 행복을 찾자!’다. 모든 이가 행복해 하거나 또한 행복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 스님은 또 다른 장애인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 "승가건강비법 신비의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낳는 여인이 배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성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7시 20분 -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효능)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공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년이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액을 섞었다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상문의 전화번호: 031)673-1285  
참나선원 대진스님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당신도 설법을 연수하면 설법을 잘할 수 있다 ???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원장 직접 지도

**교육일정**

- ❖ 중 합 반 : 10인 이내
- ❖ 개인지도 : 환영, 특별지도

**연수안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수시접수
- ❖ 강 의 : 중 합 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개인지도 - 직접 상담후 결정
-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우물 철학박사 김철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韓國 說法 研修院**  
서울시 중로구 중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 3. 5호선 중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